

[바 둑]

이세돌·이창호 꿈작마!... 반상 '10대 돌풍'

10대 기수들이 20~30대가 주도하고 있는 한국 바둑계의 정권교체를 예고하고 있다.

한상훈, LG배서 中 구리 등 연파 초단 첫 세계대회 결승 진출 기염

주인공은 한상훈(19) 초단과 박정환(14) 2단. 한상훈은 최근 한국 바둑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했다.

그는 LG배 세계기왕전에서 온소진 4단을 물리치고 대망의 결승에 올랐다. 국내 바둑사상 초단이 세계대회 결승에 오른 것은 처음.

그는 16강전에서 중국 랭킹 1위 구리 9단을 대전표에서 지운데 이어 8강전에서도 중국의 류징 8단을 단칼(불계)에 제압하는 등 화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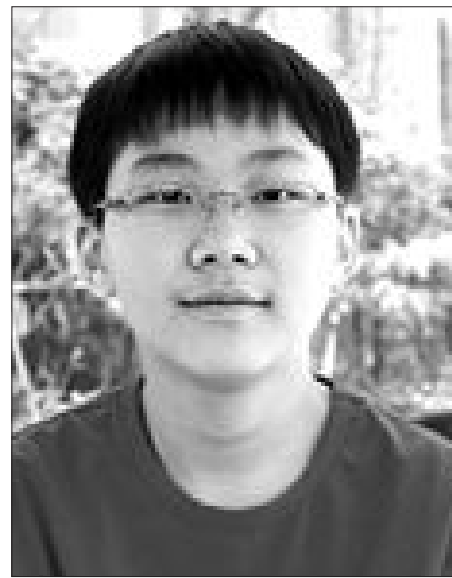


<한상훈 초단>

파괴력을 선보였다.

한 초단의 프로입문도 극적이다. 중 1때부터 프로 입단대회에 15번이나 참가, 본선리그에만 10번째 진출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한국기원 연구생이던 시절에는 '18세까지 입단하지 못할 경우 퇴출한다'는 규정에 걸려



<박정환 2단>

'제대(?)'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성격이 좋을 경우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특별규정' 때문에 연구원에 남아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입단관문을 통과했다.

박정환은 최근 엔게임 마스터스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김지석 4단을 2-1로 꺾고 생애 첫

타이틀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1993년 서울 태생인 그는 생후 14년10개월 4일 만에 타이틀을 손에 넣었으며,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챔피언 기록을 수립했다. 역대 최연소 기록은 1989년 제8회 KBS바둑왕전에서 우승한 이창호의 14년 10일이다.

14세 소년 박정환 엔게임 우승 등 '가장 장래가 유망한 신예' 선정돼

그러나 1년 6개월 만에 챔피언에 오른 그는 서봉수 9단의 기록(입단 후 1년 9개월 만에 우승)을 갈아치우고 최단 기간 타이틀 획득 기록을 세웠다.

그는 지난 1월 바둑포털사이트의 사이버오로(www.cyberoro.com)가 프로그사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장래가 유망한 신예'로 선정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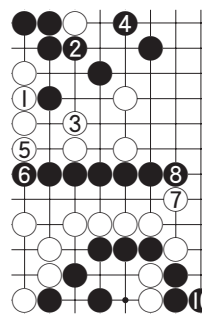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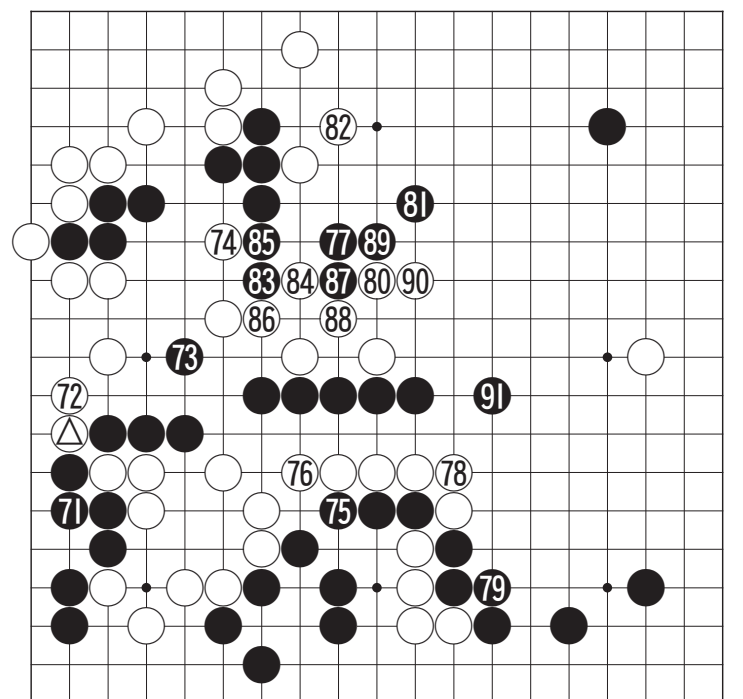
수완기에 능하고 실리를 차지하다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등 이세돌의 기풍을 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3회 전국 아마최강 결승전 한 고비를 넘긴 응수타진

5보(71~91)

白 박문홍 7단 黑 문병권 6단



<참고도>

이것은 연구생 출신인 문병권 6단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연구생 출신이라는 딱지는 시니어들에게 부담가는 상대인 것이다.

박문홍 7단은 분노를 억누르며 백으로 끊어 중앙에서의 난전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승부처를 잘못 찾고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수로도 역시 전보에서 지적한 것처럼 77 부근에 두어 위쪽 흑대마 공격에 승부를 걸어가야 했다.

흑 73이 선수며 75가 또 기분 좋은 곳이다. 그런 다음 유유히 77로 상변 흑대마를 움직여 나가자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백 82 때 자칫하면 흑이 달려들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흑 83이 위기를 가볍게 헤쳐나간 재치있는 응수타진이었다.

백 84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잇고 5를 선수한 다음 7부터 11까지 어떻게 하든지 중앙 대마를 물고 늘어져야 했다. 흑 89까지를 선수한 다음 대망의 91로 뛰어나가 한 고비를 넘겼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꿀저의 반란'... 바둑리그 영남일보 우승

영남일보와 신성건설이 정규리그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최근 열린 2007 한국바둑리그 정규시즌 최종라운드 경기에서 영남일보와 신성건설이 1승씩을 추가하며 각각 11승 3패, 9승 5패로 리그 1, 2위를 차지했다.

본선리그 마지막 대결이었던 신성건설과 제일화재의 경기에서는 신성건설이 승리하며 9승 5패로 리그 2위에 랭크됐다.

8승 6패로 경기를 마친 제일화재와 울산다이체, 한게임은 승패가 동률을 이뤘으나 개인승수에서 앞선 울산다이체(35승)가 3위, 제일화재(30승)가 4위에 올랐다.

지난해 우승팀 광주 KIXX는 5승 9패로 7위, 전남 대방노블랜드는 1승 13패로 최하위인 8위를 기록했다.

포스트 시즌 경기는 오는 12월 7일부터 시작된다. 준플레이오프에서 4위 제일화재와 3위 울산다이체가 격돌하고, 14일 진행되는 플레이오프에서는 준플레이오프 승리 팀과 2위 신



서울 신성건설의 목진석 8단이 2007 한국바둑리그 정규시즌 최종라운드에서 충북 제일화재 진동규 3단과 대국하고 있다.

신성건설·울산다이체·제일화재 등 플레이오프 진출 작년 챔프 광주 KIXX 7위 그쳐...내달 7일부터 준PO

성건설이 대결을 펼친다. 한국리그 챔프 결정전은 19일부터 3번기로 진행된다.

KB국민은행 2007 한국바둑리그는 한국기원, 바둑TV에서 주최, KB국

민은행에서 후원한다. 우승팀은 2억 5천만원, 준우승팀은 1억 5천만원의 상금을 받게되며 제한 시간은 각각 10분 30초 초읽기 3회.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원성진 먼저 1승...천원전 결승 강동운 꺾어

원성진 8단이 지난 21일 강원도 KCP호텔에서 열린 제12기 바카스배 천원전 결승 5번기 1국에서 강동운 7단을 누르고 선취점을 챙겼다.

초반 우변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원성진 8단은 계속되는 공격으로 백의 추격을 따돌렸다. 강동운 7단은 끝까지 복잡한 변화를 일으키며 역전을 노렸으나 중앙 대마가 잡히자 돌을 거두었다.

239수 흑불계승. 대국을 끝낸 원성진 8단은 "3년 전에도 1국을 승리한 뒤 언덕

아 패배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한 판을 이기긴 했지만 반상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결승 1국을 포함한 결승 5번기 모든 대국은 강원도 양구에서 진행됐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1시간의 준속기전이다.

우승상금은 2천만원이다. 제2국은 12월 4일에 속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노장은 살아있다" 조치훈, 장수 꺾고 7년만에 기성전 결승에

조치훈 9단이 일본 기성전 도전권을 따냈다. 조 9단은 최근 도쿄 일본기원에서 열린 제32기 기성전 도전자 결정전에서 장수 9단을 백 4집 반으로 따돌리고 도전권을 손에 넣었다.

지난 2000년 왕리청 9단에게 기성을 빼앗겼던 조치훈 9단은 7년만에 기성전 결승 무대를 밟게됐다. 조 9단은 현 타이틀 보유자인 아마사타 게이고 9단

을 십단전에서 3-1로 꺾은 바 있어 타이틀 탈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도전 7번기 제1국은 내년 1월 12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릴 예정.

조치훈은 이번 기성전은 일본랭킹 1위 기성전으로 우승을 차지한 기사에겐 4천200만엔(한화 약 4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도전기는 각각 8시간에 60초 초읽기 10회로 진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대인동삼일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한일지도판매(주)', and '부자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Each ad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